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김미정*

— 목 차 —

1. 2014년의 소설과 미학적 이질감
2.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 모독의 회로
3. 기억할 것인가, 기념할 것인가
4.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는가
: ‘존재론’으로서의 기억
5. 누가 무엇이 ○○하는가 : 정동들의 네트워크
6. 나가며-공포에 끌리지만, 희망에도 끌리는 존재들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5·18을 둘러싼 폄훼 및 모독이, 대중의 감수성과 연동되는 ‘기억-정동’ 전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소위 기억 전쟁은, 수정주의 역사학이나 보수 이데올로기의 협잡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대 한국에서 이루어진 5·18 폄훼와 모독은 대중의 감수성 레벨에서 자율적 회로를 통해 유통되어왔다. 이것은 201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중레벨에서 가시화한 반동 혹은 혐오발화의 문제계와 겹친다.

한편, 2014년에는 ‘오월에 대한 문학적 진상규명’ 작업에 다시 골몰하는 듯 보이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발표되었다. 증언의 증언을 연상케 하는 다소 복고적인 미학적, 문학적 형식이 의아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본격화한 ‘기억-정동’ 전쟁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소설은 명백히 시대정합성을 갖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맥락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다. 이에 따라 <소년이 온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첫째, ‘기억도 경험도 없는 세대’가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글쓰기를 하는지 보여준다. 이때 ‘기억’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소설 속 세계는, 1980년 5월 광주가 이념이나 윤리를 매개로한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정동 네트워크였음을 암시한다. 이때의 5월 광주는 문학적으로뿐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재해석되거나 보충설명 되어야할 대상이 된다.

셋째, 소설은 막연하고 맹목적인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대중(인간)은 공포보다 희망에 더 잘 이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보다 공포에 더 잘 이끌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희망에 이끌리고 정동되는 존재로서의 대중(인간) 쪽에 한 줌의 기대를 건다. 이렇게 하여 이 소설은, 2010년대 ‘기억-정동’ 전쟁 속 꺾어와 모독의 정동에 대한 치열한 저항, 준엄한 응답의 장소를 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에서 <소년이 온다>는 개별 작품론이나 작가론의 대상으로만 회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주제어 : 『소년이 온다』, ‘기억-정동’ 전쟁, 순수기억, 증언, 대중(multitude)

1. 2014년의 소설과 미학적 이질감

2014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30여년전의 역사=공식기억으로서의 ‘5월 광주’를 다루는 소설이다.¹⁾ “『봄날』과 함께 ‘오월’에 대한 문학적 진상 규명 작업은 하나의 분수령을 넘었”고 “문학은 ‘오월’로부터 또 다른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평가²⁾로부터, 그리고 5월 광주가 2002

1) 창비문학블로그 ‘창문’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연재한 소설이 2014년 5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단행본 『소년이 온다』(창비, 2014.5)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 김형중, 『『봄날』 이후』, 『내일을 여는 작가』, 2002년 여름.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5·18 기념재단 엮음, 심미안, 2006) 재수록, 본문 인용은 재수를 참조했다.)

년 이래 매년 5월 금남로에서 문화축제³⁾로 기념되기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생각할 때 『소년이 온다』는 옛시절의 “문학적 진상 규명 작업”을 다시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는 점에서 낯설고도 익숙한 텍스트이다. 이 기묘한 이질감과 관련하자면 다음 두 개의 논의도 약간의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선 “증언 불가능”을 강조하며(…)광주의 참상을 더 정확히 재현하는 소설(…)광주에서 일어난 비인간적 참상에 관한 가장 정확한 기록물”⁴⁾이라는 평가. 그리고 “망각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이 온다』는 최소한의 현재성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고립된 결벽으로 완강하다는 점에서 아직 현재를 향해 열려 있지 않다.”⁵⁾는 평가. 전혀 다른 맥락의 논의로부터의 인용들이지만, 행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공히, 2014년이라는 시점과 『소년이 온다』 사이의 미학적 이질감이다. 전자의 논의(조연정)는 ‘재현’ ‘기록’ 등의 개념을 통해, 또한 후자의 논의(서영인)는 소설 속의 서사적으로 고립된 시·공간을 지적함으로써 이 거리를 환기시킨다. 즉,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두 선행논의들은, 『봄날』(1997)에서 이미 완료되었다고 진술된 “문학적 진상규명 작업”이 『소년이 온다』에서 다시 주

3) 예를 들어 2002년 제1회 청소년평화축제로 시작한 후, 2017년 현재 13회를 맞은 ‘레드 페스타(RED FESTA)’의 경우(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518.org/sub.php?PID=030502>). 이 축제는 5·18 정신의 계승과 젊은 세대와의 기억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민주주의 문화제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이런 문화제적 성격으로의 이행에 대해, 당시 도청에서 시민군 활동을 도운 바 있는 한 증언자(정숙경)는 다음과 같이 위화감을 토로할 정도로 세대에 따라 그 변화가 가파르게 체감됨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서 5·18 축제가 된 거예요? (...) 어떻게 청춘들이 비참하게 갔는데 축제예요? 추모제를 해야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날만큼은, (...) 절대 축제가 아니예요.”(광주전남여성단체 연합기획, 이정우 편집,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 2012, 253면)

4)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14.12.

5) 서영인, 「집단기억과 개별성의 고통 사이- 한강, 『소년이 온다』(창비, 2014)」, 『삶이 보이는 창』, 2014년 가을.

제화되었다는 심증을 강화시켜준다.

잠시 텍스트 안의 시공간을 확인해본다. 이 소설은 1980년 5월 20일 즈음부터 27일 사이의 광주 도청 부근의 일을 그리고 있다. 항쟁의 서사 자체보다도, 각 인물들의 감정선의 흐름을 따라 5월 광주가 복원/창조되고 있다. 성별, 직업, 계급, 연령의 다양성이 고려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후일담이 조망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 이 소설은 이전의 광주 소설과는 다른 자리에 놓인다. 그리고 이 소설은 어느 광주 소설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죽음과 생존, 아만과 존엄, 비인간과 인간 등의 문제에 골착한다. 의도했든 아니든 작가는 “가장 정확한 기록물”(조연정) 혹은 “고립된 결벽”(서영인)을 택했고, 아우슈비츠 절멸의 시간으로까지 거슬러 갈 질문들을 2014년의 소설에 담았다.

‘문학적 진상규명’을 연상시키는 이 낮은, 어떤 사건과 소설적 형상화 사이에는 그것을 조망할 시간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식의 통념과도 별개의 문제이다. 작가는 1980년 5월에 광주에 있지 않았고, 그 일의 의미 역시 알지 못했을 나이(11세)였다. 그리고 30여년이 흐른 후에 그것을 서사화하기 위해 취재하고 많은 증언과 기록물을 참고했다. 말하자면 『소년이 온다』는 경험적 제약으로 인한 서사적(미학적) 부담뿐 아니라 윤리적 부담까지 감안하면서 “문학적 진상 규명 작업”을 다시 피한 소설이라고 해도 좋다. 일견 이것은 ‘증언의 증언⁶⁾’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학적으로는 후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재현법은 어떤 맥락을 갖는 것일까.

이때, 소설 속 가족을 잃은 생존자의 말도 나란히 복기해본다. “아무도

6) 실제로 이 책 마지막 별지에는 작가가 이 소설을 위해 도움 받은 자료의 목록들(『광주 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광주, 여성』(이상 증언록), <우리들은 정의파다>, <오월에> (이상 영화), <5·18 자살자-심리부검보고서>(TV 다큐멘터리))와 실제 관련자 기억에 대한 언급이 있다. “최대한 사실성에 의지하려 했”다는(임철우, 『책을 내면서』, 『봄날』 1, 문학과지성사, 1997) 『봄날』의 작가는 자신이 겪은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에 대해 여러 지면에 밝힌 일도 있지만, 『소년이 온다』의 작가는 이런 절박함과 거리가 있는 세대임을 다시 기억해두자.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211면) 소설 속에서 이 말은 두 번 반복된다. 이 항의는 궁극적으로 역사의 훼손과 관련되는 것일진대, 그는 왜 왜곡도 부정도 아닌 “모독”을 막아달라고 했을까. 국가폭력, 제노사이드 같은 말 이외에 죽음의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을 “모독”하는 이는 누구인가. 다시 과감히 질문을 바꾸어 본다. 『소년이 온다』는 철 지난 “문학적 진상규명 작업”인가, 아니면 문학의 시대정합적이고 불가피한 미학적 대응인가.

2.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 모독의 회로

작가가 이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2012년 겨울은,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되었다는 주장을 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 극우이데올로기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⁷⁾ 그리고 이후 이 판결에 탄력받은 몇몇 커뮤니티 기반 네티즌들이 광주 폄하, 조롱 여론을 이어가면서 강력한 반동의 흐름을 가시화한다. 급기야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악의적 루머의 거점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강력 대응을 했고, 2014년 7월에는 이들의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⁸⁾

5·18을 폄훼, 모독한 것이 이들이 처음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광주’는 처음부터 정부의 악의적, 조직적 왜곡으로 프레임된 장소였다. 오늘날도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루머, 가령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 무장시민 폭동설

7) <연합신문> 2013년 5월 21일 기사 ‘5·18 왜곡 앞장 종편·누리꾼 출소송 휘말릴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70614>

8) 5·18기념재단 2014년 7월 10일 보도자료 <5·18영령 앞에 고개 숙인 일베 회원들> 참조/ <http://www.518mf.org/sub.php?PID=0204&page=&category=&searchText=%EC%9D%BC%EB%B2%A0&searchType=all&action=Read&page=1&idx=363>.

등의 기원을 거슬러가자면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회성의 담화문으로까지 소급된다. 잠시 그 일부를 인용해본다.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고정간첩·인용자 주)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데 기인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강패 등 불량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 무기와 폭약을 탈취하여 난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극한적인 목표는 너무나도 자명하여 사태의 악화는 국가 민족의 운명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 사실입니다.”⁹⁾

이 담화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듯, 북한 개입설, 무장시민 폭동설 등은 당시 정부가 준비한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또한 실제 이를 공식적으로 주장, 유포시키기 위해 보안사령부는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비공개 조직 ‘5·11연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곳에서 주도적으로 5·18 왜곡을 위해 군 관련 서류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¹⁰⁾

1980년 5월 광주를 둘러싼 국가적, 법리적 판단은 종료되었지만,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데올로그나 그 관련 단체들은 끊임없이 역사 왜곡과 폄해를 행해왔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특히 앞서 말한 2012년, 한 유명 극우이데올로그의 수년에 걸친 광주 모독, 왜곡 발언이 최종 무죄로 선언된다. 그리고 그 직후 대중테벨에서 광주 모독, 왜곡이 증폭되는데, 이는 이전의 일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일이기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9)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 총서』 제2권, 1997. 인터넷 사이트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자자료총서’(www.518archives.go.kr/books)에서도 확인가능하다.

10) <한겨레신문>, 2017.5.17. (정대하 기자) [단독]보안사, 비밀조직 꾸려 “5·18폭동”으로 조작/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5040.html>

그 한 사례로서 잠시, '대책위'에 고소당했다가 이후 반성 및 사죄를 하고 고소 취하된 한 유저의 반성문 일부분을 보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사이트에서 폭동이다, 총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는 글들을 보고 그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사실들을 원래 사실인 듯 알고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¹¹⁾

악의적 루머의 주요 거점(커뮤니티)에서 행해지는 5·18 왜곡이 일관된 논리 회로를 가지지 않음은 잘 알려져 있다. 반성문의 필자는 유족들을 택배기사에 비유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가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 인용에서처럼 왜곡을 유포하는 그들에게 사실관계, 진위여부는 중요치 않다. 그들에게 (왜곡된) 팩트는 이미 주어져 있다. 그들에게는 팩트와 관련하여 형성되는 어떤 감정적 파동을 공유, 확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같은 소통의 회로 안에 있는 이들은 이 글과 사진을 통해 재미와 웃음을 공유했다. 그렇기에 그들 사이에서는 사실의 왜곡이나 부정 자체의 공유가 아니라, 왜곡을 바탕으로 한 조롱과 모독이 더 중요하다. 즉, 이 건은,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한 것보다도 그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모독'한 것에 핵심이 있다. 대중 레벨로 확산된 5·18 펌웨어, 이데올로그들의 조직적 그것과 달리, 이렇듯 왜곡된 팩트를 둘러싼 다양한 정동(affect)¹²⁾을

11) 위의 8번 각주 참조

12) 이 글에서 '정동'이라는 말이 쓰인 자리마다 '감정' '정서' 등을 넣어본다고 가정해보자. '감정' 정서로 대체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반면, 어떤 대목들은 결코 그 말들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대목들, '감정' '정서' 같은 말들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맥락의 문제의식으로 인해 'affect=정동'의 사유가 요청된다. 번역어나 이론적 계보를 둘러싼 쟁점이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 '정동'이라는 말을 언표화하는 이유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우선, 한국어로 '감정', '정서' 등의 표현에는 emotion, feeling, sentiment, affect 같은 말들 사이의 미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다. 아주 거친 비유이지만, 내가 어떤 감정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언제나 무언가와와의 마주침에 의해 촉발된

매개로 유포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위의 한 유저의 사례로 돌아와보자. 그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조롱, 비방, 모욕, 혐오 등은, ‘표현의 자유’와 ‘유희’라는 명목 하에 모두 ‘유머’라고 갈무리된다. 표방한 것은 유머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스스로들의 룰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이의제기는 또 다시 조롱거리가 된다. 이때 역사의 팩트는 더 이상 진위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적 모독을 위한 웃음의 재료일 뿐이다. 하지만 그 대상에 수반되는 정동(조롱이든 혐오든 무엇이든)은 좀처럼 대상과 분리되지 않고 오랫동안 집단기억의 기저에 들러붙는다는 것이 문제다.

대중의 자발적 소통 회로 속에서 한 번 촉발된 정동은 건잡을 수 없이 활성화된다. 이때 조직적, 전문적 왜곡의 주체들은 이전과 같이 치밀한 조작 등에 골몰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 공간 내에서 쉽게 형성, 공유되는 정동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과 양태는 늘 동일하지 않음도 물론이다. 끊임없이 지속하며 움직이고 있는 시간과 그 안에서의 마주침들에서 연원하는 감정과 그 양태는 오롯이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affect=정동(情動)’은 개인에게 고착되고 귀속된다고 믿어졌던 감정의 문제를 이렇게 관계성과 운동의 문제로 재프레이밍하기를 요청하는 개념이다.

affect(라틴어 affectus, 이하 ‘정동’으로 표기)의 문제는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애초에 제기된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들뢰즈는 정동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감정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증대와 감소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정동’은 재현되고 개념화되기 이전에, 신체 수준에서 작동하는 강렬도이다. 나아가 신체의 일정한 상태와 사유의 일정한 양태를 함께 표현한다. 즉, 이 정동은 무엇보다 타자에 의해 촉발되고 그것에 의해 생성변화(devenir)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동은 단순히 일개인에게 고착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들 속에서 흐르고 발현되는 감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정동은,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도 가로지르며, 인간 개개인 뿐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사이에서 횡단하고 교류하는 힘의 관계이기도 하다. 한편, 마수미는 정동을, 객관적 실재인 무언가를 재현하는 관념(idea)과는 달리, 재현될 수 없는 사유양식이며, 일종의 내적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이함으로써만 포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목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이 글에서의 정동은 대략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 ① 개인에 고착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사유되어야 할 것, ② 상태의 이행, 운동성, ③ 힘의 증감으로서의 행위능력, ④ 언제나 변화와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는 잠재성.

적 파동을 이용하여, 특정 사실에의 특정 정동을 촉발시킬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¹³⁾

즉, 2010년대에 광주를 둘러싼 기억의 내전은 역사해석을 둘러싼 기억전쟁이 아니다. 극우이데올로기의 선동이나 정치적 반동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넷 기반)대중의 감수성 차원에서 펼쳐지는 일이다. 왜곡되고 폄훼된 역사(기억)가 내부약자를 향한 조롱, 모욕, 비방, 혐오 등과 뒤섞여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담론으로서의 기억전쟁 혹은 서구식 역사수정주의의 재래로 이해하기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명백히 '기억-정동' 전쟁인 것이고, 나아가 201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중레벨에서 가시화한 반동(backlash) 혹은 혐오발화(hate speech)의 문제계와 겹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정동' 전쟁은 언어로 구성된 담론의 형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의미화된 증거로써 대응하는 것이 애초에 봉쇄된다는 점이다. 또한 모욕, 폄훼, 혐오는 불특정 다수의 가학에서 비롯되지만, 그 부당함을 밝히는 일은 온전히 표적대상이 된 이들 스스로의 몫으로 남는 문제도 있다. 부당한 모욕, 폄훼, 혐오를 가하는 주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그것이 그저 유희였다고 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기에 모독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증거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즉, '기억-정동' 전쟁 시대의 5·18 폄훼는 사실관계(역사)의 왜곡뿐 아니라, 그 왜곡을 둘러싼 정동적 공격을 수반한다. 이에 대한 무고함,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는 이들은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오늘날 '기억-정동' 전쟁과 5·18 폄훼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국가폭력의 구조를 1980년 5월과 별반 없이 공유하는 현재의 모습과 관련

13) 실제로 2016-7년 몇몇 언론에서는(JTBC, <한겨레21>) 기획취재를 통해, 그동안 자주 문제시 되었던 커뮤니티(일베, 디시)와 국정원, 청와대와의 커넥션 의혹을 공식제기한 바 있다.

될 것이다.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의 서술자는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저건 광주잖아”라고 불쑥 중얼거린다.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가 주권자들을 향해 행하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구조와 그 안의 권력자들은 달라진 바 없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용산에서의 국가폭력을 보며 그것이 국가라고 자연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들은 다시 1980년 5월 광주의 폭력에 대해서 무감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 과시하는 국가기구와, 과거의 권력자들과,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세대를 거듭하는 구조 속에서, 언젠가 기억은 현재의 맥락에서 조작,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역사수정주의의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해 증언하던 이들의 문제는, 이렇게 다시 다른 방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증언대 앞에 서야하는 이는 여전히 당사자(생존자)이다. 그러나 몸과 정신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증언의 반복은 얼마나 가혹한가.

그렇다면 이 소설이 “가장 정확한 기록물”(조연정)이거나 “고립된 결벽”(서영인)이어야했던 이유, 그리하여 이 소설을 (완료된)“문학적 진상 규명 작업”(김형중)의 재래처럼 읽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작가 개인의 의지, 욕망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방위적 반동과 혐오의 정동이 서로를 추락시키고 야만을 경쟁할 때, 그들과 동시대를 사는 또 다른 우리는 그 야만을 돌파할 존엄에 의 서사를 의식·무의식적으로 욕망한다. 이것은 단지 한 작가의 창작동기, 욕망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 표면적으로 통일되고, 한 작가의 개성이 응축된 듯 보이는 문학텍스트는 언제나 당대의 무의식과 교호한다. 어쩌면 ‘2014년의 『소년이 온다』’는 한 작가 ‘개인’의 ‘소설(작품)’이기 이전에, 폭력과 야만으로부터 존엄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계속되어온 인류의 무수한 투쟁의 계보 속에서 읽혀야 할 텍스트인 것이다.

3. 기억할 것인가, 기념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년이 온다』가 놓인 자리는, 역사수정주의(revisionism)에 저항하며 1980년대에 본격화한 아우슈비츠 증언 논의·연구의 상황, 맥락을 연상케 한다. 증언대에 오르는 이들은 언제나 부정(denial)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입증해야 하는 이들이다. 1980년대에 아우슈비츠 경험의 당사자=생존자들이 증언대에 올라야 했던 상황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논리화한 수정주의의 세력화와 무관치 않음을 새삼 기억해야 한다.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 앞에서 그 실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는 경험의 당사자 존재이다. 증인은, 인간임을 부정당하며 죽거나 혹은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의 당사자, 곧 수용소로부터 돌아온 생존자여야 했다. 하지만 증언을 위해 말하는 이는, 과거의 수용소와 증언하는 장소 두 곳에서 자기 부정을 겪는다. 그가 하는 증언이란, 현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모멸을 다시 한 번 겪는(재현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현재 인간임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 부정당했던 인간의 시절을 최대한 증언해야 한다는 아이러니 속에서 대가를 치르는 이는, 증언하는 생존당사자이다. (왜곡과 부정의 당사자는 뒷집지는 동안 왜곡과 부정의 진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온전히 생존자들에게로 전가되는 부당한 구조가 이미 '증언'이라는 형식 속에 있었음도 기억해두자.) 그리하여 '증언'이란, 살아남은 자=대리인의 행위이고, 사건을 '말할 수 없음' 자체를 증거하는 역설 속에서 성립하며, 그럼에도 전달가능한 형태로 남겨야하므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이 온다』가 “증언의 불가능성을 증거하는 소설”¹⁴⁾이라는 의미부여는 우선은 합당하다. 실제로 『소년이 온다』 속 한 인물이 “증언할

14) 조연정, 앞의 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할 때¹⁵⁾ 이미 증언 불가능의 문제는 소설 바깥으로 언표화 되어버렸다. 나아가 이 소설에는 ‘1980년 5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이 정공법적으로 기입되어 있다. 가령 ‘**왜 나는 살아 남았는지**’ ‘**왜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사건은 증언될 수 있는지**’ ‘**왜 타인 앞에서 나의 고통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등등. 소설 속 인물들의 입과 구체적 상황들을 통해서 제기되는 이 질문들은, ‘존재를 압도하는 사건에 대해 증언·재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형성한다. 물론 이 질문과 주제는 『소년이 온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아우슈비츠 논의·연구 이후에 내내 사유되어온 증언, 증언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죽은 이의 영혼을 서술자로 등장시키거나, 다양한 초점화자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구성도, 이 증언의 무기력 혹은 불가능의 문제를 되도록 가능성 쪽으로 이행시키고 싶었던 저항(작가 욕망)의 흔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증언 불가능성의 문제는, 좀더 현실적인 딜레마 속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했듯 『소년이 온다』는 -기존의 1980년 5월 광주 소설과 달리- 일반명사로서의 광주를 ‘자각적·자발적으로’ 의미화하지 못한 세대¹⁶⁾의 작가

15)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166~167면. 이후 이 책의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병기하도록 한다.

16) 작가 한강과 비슷한 나이(8-13세)에 ‘1980년 5월 광주’를 경험한 이들의 기억은 당시 어른들의 서사화된 기억과 달리 대부분 해석과 의미화를 기다리는 기억들이다. 가령 “동네 아저씨들이 시민군들에게 빵과 우유를 줬어요. 그러면 시민군들은 우리에게 다시 그 빵을 나눠줬고요. 아무 것도 몰라서 무서운지도 몰랐어요.”(소영환, 당시 10세)라든지, “사실 제 느낌으로는 그때 축제 같았어요. 데모가 뭔지도 몰랐고 저녁이 되면 불빛이 날아다니고 하나까 마냥 신기했어요.”(김용태, 1980년 9세) 같은 발언들. 이 인용은, 당시 초등학생 나이에 한정하여 광주에 거주했던 80명의 인터뷰집인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문선희 찍고 엮음, 난다, 2016)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1980년 5월 당시 초등학생 나이였던 이들 80명에 한정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사진집 형식으로 묶은 것이다.

가 생존자의 구술·증언에 의존하여 당시 현장에 직립한 소설이다. 80년대 아우슈비츠 논의·연구가 사유한 증언 불/가능성의 문제조차 그 말하기와 쓰기의 주체는 '생존자'였다. 즉, 『소년이 온다』와 작가 한강의 관계의 특이성은, 예컨대 세월이 흐른 뒤, 생존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때 증언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질문을 소환한다.¹⁷⁾ 증언할 생존자의 생물학적 소멸 이후의 증언이란, 더 이상 역설적 의미가 아니라 축자적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존자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역사적 실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수정주의 언설 혹은 그 정동이 언제라도 되돌아오면 그 부당함은 누가 입증하는가. 혹은 어떤 역사의 증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시간이 도래했을 때 망각은 자연스러운 수순인가. 증언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존재치 않는 세계에서 미래의 사람들은 그들과 어떻게 무엇으로 관계 맺어야 하나. 증언은 반드시 직접적 경험과 그것의 언어(=재현)적 제약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광주에 대한 직접적 경험도 자각적 기억도 없을 먼 미래의 세대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모독할 수 없도록 증언하기 위해 나설 당사자조차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누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가.

결국 기억은 기념의 문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작업, 혹은 찬란한 기념비가 증언과 기억의 몫을 대신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기억'을 문화적 '기념'의 영역으로 이행시키는 일은, 기억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망각케 하는 절차다. 기억이 기념과 의례로 고착되는 것은, 언젠가 그 공동체의 누수되는 기억 틈으로 다른 기억이 역공해울 취약함을 늘 내재한다. 광주를 편취하는 정권의 집권기간 동안, 그 정권과 친연성을 갖는 '기억-정동'이 대중 수준으로 확장되고 강화될 때, 국가질서로

17) 이 주제에 대해서라면 위안부 피해생존자 구술, 증언에 대한 소설인 김숨의 『한 명』(현대문학, 2016), 『녹음기와 두 여자』(『21세기문학』, 2016년 가을) 등도 참고가 된다.

순치된 항쟁의 기념과 의례가 더없이 초라하고 허약했던 것처럼 말이다.

즉, 모든 ‘공식기억=역사’는 사적이거나 일상적이거나 주변적인 기억을 추방함으로써만 성립한다.¹⁸⁾ 하지만 소설은 공식기억=역사에서 누락된 기억들을 이야기한다. 이제 자세히 볼 것은, 『소년이 온다』를 둘러싼 기억과 글쓰기, 혹은 ‘잠재성으로서의 기억’과 재현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살피기 위해, 1970년에 태어나 1980년 1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온 작가의 사사로운 기억에 먼저 주목해본다.¹⁹⁾

4.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는가 : ‘존재론’으로서의 기억

작가 한강에게 1980년 5월 언저리는, 스웨덴 동화(아스트리드 린그렌의

18) 가령, 작가가 소설 집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자료 중, 사료적으로도 중요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과 『광주, 여성』(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저, 후마니타스, 2012) 두 권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 점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우선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은 1988~1990년 구술 채록한 작업의 성과로서, 항쟁에 직접 참여한 이들과 피해자 및 유족의 구술이 중심을 이룬다. 이 증언은 총 503명(여 32명, 남 471명, 중복인터뷰 23명 포함)을 대상으로 했고,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항쟁의 의미와 역사를 뚜렷이 목적서사화하고 있다. 금지된 표상으로서의 ‘광주’가 막 복원되기 시작한 당시의 맥락 속에서 이 작업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육하원칙의 구술기록, 항쟁 중심의 인터뷰라는 성격 뿐 아니라, 여성 증언자가 약 1/10에 불과한 것도 ‘공식기억=역사’의 구축 논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때 『광주, 여성』(2012)은 여성들만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종의 생애사적 차원에서의 ‘광주’를 이야기하는 증언록이다. 확연히 공식기억=역사(제도화)에서 누락된 여성과 일반시민의 기억이 뒤늦게 소환되고 있고, 굳이 여성을 항쟁의 주체로서 등극시키려는 의도 역시 두드러지지 않는다.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공식기억 vs. 주변부 혹은 일상의 기억을 비교, 가능하는데 두 증언록은 좋은 참고가 된다.

19) 다음 4챕터에서 이어지는 작가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2017년 2월 3일 ‘노르웨이 문학의 집’에서 열린 “Literary Guiding Stars”행사의 강연문을 텍스트로 삼았다. 강연문은 스웨덴 신문 <SVD Kultur Söndag>(2017.2.26) 실렸고, 강연문 전문은 창비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다. <http://blog.changbi.com/221006983729?Redirect=Log&from=postView>

『사자와 형제의 모험』)를 읽으며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서로를 믿고 사랑 하는가, 그들의 사랑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잔인한가를 생각하며 오래 울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1980년 여름의 기억이라고 믿어왔던 그 일이 실은 1983년 여름의 일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진술이다. 잠시 인용해본다. “1980년이 아니라 1983년의 여름. 아홉 살이 아니라 열두 살의 여름. 비록 연도에는 혼동이 있었지만, **그 계절의 감각만은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강조 인용자) 작가는 이어서 “무더운 오후” “손에 쥐었다.” “서늘한 방바닥에 배를 대고”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일어나 앉았다.” “땀이 흐를 만큼 더워지면”과 같은 말들을 구사하면서, 1980년이라고 착각한 1983년 여름의 그 장면은, 사실관계(연도)의 착각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기억이라고 이야기한다.

말하자면 1980년, 9세 소녀 한강은 서울 수유리의 어느 방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형제가 독재자와 맞서 싸우는 스웨덴 동화를 읽으며) 세계의 잔인함과 아름다움에 슬퍼하고, 그 날의 감각적 생생함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1983년 11세 때의 일이다. 그녀의 기억의 착오는 명백히 공식기억으로서의 ‘80년 광주’를 표상한다. 하지만 반복컨대 1980년 작가는 광주에 있지 않았고,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았다.

현실화되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지나간 시간 자체를 ‘순수기억’이라고 하거나²⁰⁾, 홍차에 적신 마들렌의 맛으로부터 환기, 기억된 콩브레는 “한 번도 체험될 수 없었던 그런 형태(즉, 순수과거: 인용자)”²¹⁾로서 나타난

20) 베르그손에게는 이미지기억, 습관기억, 순수기억 등의 3가지 기억의 층위가 있다. 이미지기억은 표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습관기억은 신체적 운동의 수준으로 회상된다. 한편 순수기억은 그 자체로 보존되는 시간 전체이다. 표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순수기억은 잠재성의 영역에 속한다. - 앙리 베르그손(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2장;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참조.

21) 질 들뢰즈(서동욱·이충민 옮김),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1997, 100면.

다고 말한 이들을 미처 떠올리기도 전에, 작가는 자신의 기억의 착오를 다 음과 같이 해석, 의미화한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내가 왜 연도를 착각해 왔는지 깨달았다. 나의 내면에서 이 책이 80년 광주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1980년 아홉 살의 내가 문득 생각했던, 그 여름을 이미 건너지 못했 으므로 그 가을로도 영영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도시의 소년들의 녀이, 그로부터 삼 년 뒤 읽은 이 책에서 두 번의 죽음과 재생을 겪는 소년들에게 로 연결되어 내 몸속 어딘가에 새겨졌다는 것을 마치 운명의 실에 묶인 듯, 현실과 허구, 시간과 공간의 불투명한 벽을 단번에 관통해서.”

기억은 하나의 개별적 몸에 속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은 당연하게 도 어떤 구체적 관계들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또한 자발적 기억도 있지만 비자발적 기억도 있다. 현재화된(actual) 기억도 있지만 잠재적인(virtual) 기억도 있다. 기억은 과거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기 도 하다. 잠재성 계보의 철학자들이 골몰했듯, 기억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 라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1980년 5월 광주는 그 물리적, 시간적 거리를 초월하여 이미 작 가의 몸에 이미 그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양태로 늘 존재하고 있던 기억이 다. 그녀에게 이미지기억으로 표상된 광주란 우선 ①“밖에 나가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광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돼.”라는, 금기, ②동화를 읽으며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잔인한가”에 슬퍼 하던 일과 그 날의 감각들, ③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안방의 책장 안쪽에, 책등이 안 보이게 뒤집어 꽂아놓”은 책에서 목격한 사진들이다. 이 세 개의 기억은 각각 파편적으로 흩어져 발화되었다. 그러나 순수기억 속에서 동화 (②)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광주(①③)에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즉, 작가에게 사실관계(연도)의 혼동 혹은 기억의 착종은, 그녀가 이미 공 식기억으로서의 1980년 광주와 연결되어 있었음의 흔적이다. 동화를 읽으 면서 느낀 강렬한 몸의 일들은, ‘광주’가 “시간과 공간의 불투명한 벽을 단

번에 관통해” 잠재적 지대에서 연결되고 있었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작가 개별적 몸의 기억인 동시에, 부지불식중 물리적 시공간과 자각적 지각의 범위를 초월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된 기억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억은 한 개인의 심리학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 삶의 잠재성과 창조성에 골몰했던 베르그손은 이를 ‘순수기억’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순수기억은 뇌에 저장되는 표상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보존되는 시간 전체이다. 신체적 메커니즘을 지니지 않거나 표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순수기억은 공간적 범주(가령, 뇌)와 무관하게 시간적 차원에만 속한다. 즉, 지나온 시간, 역사 자체로서 보존되는 순수기억은 회상과도 다르다. 이것은 어떤 계기와 접속하면서 현재화되지 않는 한, 잠재성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순수기억은 정신분석학에서의 ‘무의식’과 같은 과거에 고착된 트라우마와도 다르다. 베르그손은 잠재적으로 존속하던 과거를 현재 속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여는 것이 순수기억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 순수기억이 현실태로, 혹은 어떤 현재적 힘을 지닌 사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흥차에 적신 마들렌과 같은 특정한 계기들이 필요하다. 그 연결의 잠재성을 현재화하고, 새로운 차원의 시간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2009년 용산의 불타는 망루 영상에 대한 소설 속 화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이 연결들의 의미는 “2009년 1월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207면)에 의해 비로소 일깨워지고, 과거의 잠재성을 현실화하며 현재를 변화시킨다. 작가에게 있어서 수유리와 광주와 용산은 “사실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진실의 측면에서”²²⁾ 들여다보아야 할 것으로 놓여 있다. 한 번도 체험될 수 없었던, 혹은 잠재성으로서의 순수기억은 이렇게 계기를 얻고 새로운 사건으로 활성화된다. 반복하지만 1980년 5월 광주, 1983년 여름 수유리, 2009년 겨울 용산은, 이렇게 작가 개인의 몸을 매개로 이미 늘 연결되어 있었던 사

22) 질 들뢰즈(서동욱·이충민 옮김), 앞의 책, 100면.

건들이(었다).

그렇다면 역설적이지만 1980년 5월 광주는 작가가 과거/현재에 실제로 겪은/겪는 일이다. 그녀에게 ‘광주’는 트라우마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늘 열려 있던 기억이자 사건이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1980년 5월은 ‘광주’와 무관한 시절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의 ‘광주’ 자체이기도 하다. 작가의 ‘몸속 어딘가’에 ‘광주의 소년들의 뉘’와 ‘스웨덴 동화 속 죽음과 재생을 겪는 소년들이 연결되어 “새겨졌다”는 것’을 깨달은 일,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207면)으로 인해 단번에 환기되고 연결되는 일은 엄연히 기억이 현실화된 새로운 사건이다. 여기에서 기억은 분명 한 개인의 고유성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개인기억을 넘어서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모든 존재들이 연결된 기억이다. 어쩌면 생존자 없는 증언, 기념비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기억은 이런 식으로 말해지거나 쓰여질 수 있는지 모른다. 『소년이 온다』는 이렇듯, 기념과 망각에 저항하는 방법과 그 재활성화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텍스트로서 의미화할 수 있는 것이다.

5. 누가·무엇이 ○○하는가 : 정동들의 네트워크

텍스트 안의 이야기를 보자. 『소년이 온다』에서 특기할 것은, 오감과 관련된 감각의 묘사라든지, 정동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들이다.²³⁾ 또한 소설에서 유독 치욕, 고통, 분노, 증오, 수치, 죄책감, 슬픔 같은 느낌이나 감정, 정서, 정동을 규정하는 어휘들이 자주 언표화되거나 묘

23) 죽은 정대의 혼은 불타는 자신의 몸을 지켜보면서 ‘습기찬 바람, 벗은 발등에 부드럽게 닿던 감촉, 로션과 파스 냄새, 누나가 쓰다듬어준 내 얼굴, 차가운 물, 몽클몽클한 맛바람, 떨어지는 목소리, 아카시아 냄새, 혀를 데어가며 후후 불어 먹은 햇감자, 씨앗들까지 꼭꼭 씹어 먹은 수박, 퐁퐁 언 두 발’(55-57면) 같은 몸의 감각들을 기억해내기 위해 인간 힘을 쓰는 슬픈 장면은 특히 ‘몸-기억-감각-감정’의 문제를 두드러지게 가시화했다.

사되고 그것이 각 인물들의 상태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소설 전체의 정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주목해본다.

이렇듯 가시화된 몸의 것들과 관련하자면, 이 소설의 '흔' '몸'의 문제를 질문하거나,²⁴⁾ '공통의 느낌 구조' '집합적 감정(emotion)'으로 항쟁주체를 설명하거나,²⁵⁾ "정동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서술전략"²⁶⁾으로 설명하는 등의 선행논의들도 좋은 참고가 된다. 소설 속 다양한 정동(감정)²⁷⁾의 문제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아가 그 정동 자체가 인물들을 추동하는 모습을 암시한 이 논의들은, 확실히 광주 소설과 항쟁 성격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이다.

이 논의들은 증언의 의미와 항쟁의 주체에 대해 다른 상상력을 제공한다. 이들 논의가 제공한 상상력을 조금 더 밀어부쳐보자. 『소년이 온다』를 추동하는 치욕, 고통, 분노, 증오, 수치, 죄책감, 슬픔, 우울과 같은 정동들은 누

24) 한순미, 「나무-몸-시체 : 5·18 전후의 역사 폭력을 생각하는 삼각운동」, 『인문학연구』, 2016. 이 글은 임철우, 공선옥, 한강의 광주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폭력이 남긴 고통의 잔해를 몸의 감각과 관련해서 증언하는 소설로 읽는다. 이 글의 관점에서는 몸의 감각이 증언하는 것들이 증언의 (불)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아픔들을 더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건”으로 증언을 재정의한다.

25) 심영의, 「5·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2015. 이 글은 소설의 인물 내면에 주목하면서, 항쟁의 주체가 개개인의 감정(emotion), 즉, 사건을 마주한 개개인의 감정이 모인 '집합적 감정'이라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이제까지 항쟁의 주체를 민초, 민중, 무장시민군 등과 같이 목적서사적으로 개념화된 무리(집단)로 명명해온 패러다임을 넘어설 단서를 주는 견해이지만, 감정을 '개인(individual)' 단위, 차원에 고착된 것으로 사유해야 할지, 아니면 근대적 개인(개체)을 초과하는 것(pre-individual/trans-individual)으로서 사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6) 정미숙, 「정동과 기억의 관계시학- 한강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6. 이 글에서 『소년이 온다』는 “광주를 내밀하게 복원하기 위해 시점에 따라 기억을 교차적으로 재현하고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서술 전략을 구사”하는 소설로 논의된다.

27) 선행논의들이 '감정'으로 표현한 대목을 '정동'과 병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글의 각주 12번 참조.

구의 것인가. 물론 이 정동들은 서사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것이다. 소설 속에서 이 다양한 정동의 조건과 양상은 동호, 진수, 선주, 정대, 선주, 은숙, 교대복학생, 동호엄마, 교대복학생 등등, 개별 인물 각각의 신체에 할당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해서 종종 잊는 바지만, 이 정동들은 ‘나’의 몸에 속한 것이면서 언제나 다른 몸과의 ‘마주침’의 결과다. 마주침에 수반하여 나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겨지고, 서로 공모된 또 다른 몸으로 변용한다. 부딪히는 쪽뿐 아니라 부딪힘을 당하는 쪽에서도, 닿는 쪽 뿐 아니라 닿아짐을 당하는 쪽에서도 서로에게 어떤 흔적을 남긴다. 정동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때의 ‘몸’은 더 이상 개별적(individual), 인격적인 것에 한정될 수 없다.

소설 속 인물들의 죄책감이나 수치 등이 그들 개인들의 내면에 고착된 것,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가령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동호와 진수의 사례만 보아도 좋다. 그들이 먼저 죽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 수치를 끌어내는 것은 스스로의 몸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만 제시된다. 죄책감, 수치 등은 개인의 내면성, 내밀하고 심리학적인 것에만 귀속되지 않는다. 나에게 직접 주어진 정동이나 기분은 ‘내면성’이라는 말로 설명되며 나에게만 직접 현전하는 특권적인 내밀한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내면성은, ‘나의 몸, 신체’라고 인지할 형상(이미지)의 상상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내면성은 “형상을 만들어냄에 따라 출현하는 무언가”이다. “내면과 외면의 차이 그 자체가 형상의 조작에 따라”²⁸⁾ 정립된다. 정동은 자기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 속에서 사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관계적’이란 말은, 주체와 대상(능동과 수동, 가해와 피해 등등)을 정동이 매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동은 주체와 대상의 구분 자체를 무화시키고, 몸과 몸들을 무매개적으로 접합시킨다. 소설 속 수치,

28) 酒井直樹, 『情動の政治學』, 『思想』, 2010. 5.

죄책감, 슬픔, 모욕감 등은 개별 인물들의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의 변용된 신체의 고유성을 증언한다. 인물들 각각이 증언하는 정동은 개인적, 심리적인 것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몸, 관념, 역사, 장소의 **충들에서**”²⁹⁾(강조 인용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설 속 동호가 정대의 죽음을 뒤로 하고 달아난 일에 대한 죄책감(31면)은, 정대라는 타자(몸), 정대에의 기억(관념), 정대와의 우정(역사), 1980년 5월 도청 광장(장소)와 같은 것들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즉, 소설 속 인물들의 행동을 추동하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 윤리, 선한 의지 같은 말로 설명될 수 없다. 소설 속에는 “왜 누군 가고 누군 남아요.”(28면)라는 질문이 두 번 반복되는데 1990년이었다면 “민중이 자발적인 합의에 이를 때 이런 엄청난 도덕성이 나타난다.”³⁰⁾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즉, 과거 이들은 “민중”이었고 “자발적 합의”를 통해 “엄청난 도덕성”을 발휘한 존재들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소년이 온다』는 이에 대한 답을 마련해두지 않는다. 선/악을 넘은 장소를 응시한다. 남은 이는 선하고 떠난 이는 덜 선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 혹은 행동은, 각 신체가 서로 마주치고 정동되고 연결된 것의 흔적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도덕성”으로 발현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시민군에 가담했던 일반인들의 증언에서³¹⁾ 공통적

29) 엘스페스 프로빈, 『수치의 쓰기』, 『정동이론』(멜리사 그레그 외, 최성희 외 옮김), 갈무리, 2016, 145면.

30) 작가 송기숙은 한 증언의 장에서, 5월 25일 계림극장 앞 담배 품앗이 일화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의미화한 바 있다.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90, 164면.

31) 역시 1990년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에서 펴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의 증언들을 참조했다. 별도의 주제의 글이 되어야겠지만, 이 증언집에 실린 증언자들(특히 시민군 참여자들)의 참여 과정은 명백히 ‘두려움→분노’로(실제 증언자들은 이 단어들 자

인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시민군에 가담하려했다거나 어떤 윤리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증언 ㄸ트머리에는 ‘정의, 조국, 시민의 힘, 도덕, 참된 인간, 역사의식, 민주화, 인간의 길’ 같은 말들도 거의 예외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고 시점에서의 사후적 의미부여일 뿐이다. 실제로 그들은 우연히 방치된 시신을 목격하거나, 눈앞에서 시민들이 폭력에 쓰러져 죽어가는 장면을 직접 마주치면서 ‘분노’를 느꼈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³²⁾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항쟁에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선택하게 한 것은 어떤 마주침들이고, 그 마주침의 흔적으로서의 정동들이었다. 구체적 상황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강한 분노, 죄책감 등이 어떤 역치를 넘어 활성화되면서 그들은 행동했다.

육하원칙의 증언록 속에서의 정동은 의미화된 담론구성물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잉여처럼 기술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행동케하고 다른 신체로 변용시키는 추동력이었다. 그러므로 항쟁을 의미화하는 5월 공동체, 절대 공동체 같은 말이 온전히 그 의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들을 연결시킨 정동의 연결과 이행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광주 이후 1980년대 내내 한국에서의 공동체란 종종 하나의 지향을 공유하는 목적서사의 언어로 설명되어왔다. 하지만 실제 광주, 그리고 광주로 상징되는 모든 광장은 결코 선형적 하나의 지향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않는다. 지금 당시의 증언록이 재독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소년이 온다』가 그 재독해-이어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광주와 나아가 모든 광장의 내부는 우선은 그저 서로의 사람됨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정동 네트워크였음을

주 구사한다) 설명가능할 것이다. 증언자들 대부분 처음에는 이 폭력과 항쟁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저 수동적으로 시위에 휩쓸렸고 두려워했다는 진술을 한다. 그리고 점차 상황 파악을 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갔다’는 진술도 거의 공통적이다. 물론, 폭력을 향한 각성된 ‘분노’가 시민군 참여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은, 다시 각자의 정황들과 각자의 삶의 의미와 맥락 등을 통해 재구성해내야 할 것이기도 하다.

32) 최동복(당시 15세)의 증언. 소설 속 ‘동호’와 ‘정대’를 연상시키는 인물이기도 해서, 일종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인용했다.(『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90, 384~388면)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동 네트워크는 단순히 개별자들의 감정의 총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자들이 그때까지의 각자의 정체성에서 이탈하거나 절단하여 다른 신체들과 접합하고 네트워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소설 밖 또 다른 한 증언자의 이야기³³⁾를 잠시 보자. 1980년 5월 당시 11세였던 한 소녀는, 평소 돈과 관련해 “천하에 몹쓸 인간”, “인간말종”이라고 생각하며 창피해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계엄군에 쫓기는 대학생을 하룻밤 숨겨주고 나갈 때 돈을 쥐어 보내던 장면을 길게 회상하면서 인간이란 존재의 불가해함을 환기시키는 기록도 있다.

말하자면, 돈에 관한한 일관되게 탐욕스러웠던 한 사람이, 계엄군에 쫓기는 대학생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돈과 호의를 베푼다. 타인에게 일관되게 고정된 정체성으로 비추어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그러한 정체성을 끊어내고 전혀 다른 삶의 인격이 된다. 소설 바깥 증언자의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가해함 뿐 아니라, 그를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게 하는, 그 안의 잠재성을 환기시킨다. 소설이 보여 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세계이다.

즉, 『소년이 온다』 안의 세계도 그러하거니와, 실제 5월 광주가 거대한 정동 네트워크였음은 이 글이 각별히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다. 그렇다면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란 한 작가가 쓴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과 개별신체적 거리를 초월하여 서로 네트워킹된 정동-쓰기의 생산물이기도 하다. 우선, 작가가 “또렷하게” 기억한 몸의 것들은 ‘한강—어른들의 금지—스웨덴 동화—동화 속 형제—광주 사진첩—광주 소년들의 낫—2009년 용산의 망루—그리고 (...)’ 식으로 연결되어 『소년이 온다』를 쓰는 거대한 신체가 되었다.(4챕터) 그리고 소설 속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것은 작가가 창조한 개

33) 당시 11세였던 김옥희의 증언 (문선희 찍고 엮음,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 난다, 2016)

별 인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정동이었고, 그것은 실제 항쟁에서 서로를 ‘인간’이라고 증거해주기 위해 연결된 정동 네트워크의 환유였다.(5챗터) 즉, 이 정동들의 네트워크가 지금 『소년이 온다』를 썼고, 광주를 기념에서 다시 기억의 영역으로 이행·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크고 작은 작은 광장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소년이 온다』는 ‘기억-정동’ 전쟁 시대의 ‘문학적 항쟁’의 사례, 방법, 사건으로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이다.

6. 나가며 – 공포에 끌리지만, 희망에도 끌리는 존재들

“망각이 가능하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³⁴⁾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초, 인터넷 각 커뮤니티마다 전국 대학가와 공무원 학원가에 ‘5·18 금수저 유인물³⁵⁾이 돌고 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이를 조명하는 기사를³⁶⁾ 내보냈다. ‘북한군 개입설’ ‘무장 시민 폭동설’이라든지, 모독과 유머를 교란시키는 전략이 시효를 다해가자, 이제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 대상의 혐오발화 논리(ex. ‘약자라고 항상 선하거나 옳은 존재가 아니다’)에서 출발하는)로 무장한 새로운 5·18 폄훼가 등장했다. 2010년대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의 기저에는 늘 ‘경제, 일자리 문제’가 있다. 각자도생의 심상이 넘실대는 세계 속에서

34) 한나 아렌트(김선옥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324면.

35) 유인물의 문구만 나열해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공부해도 소용없어!’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명단, 5·18 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들 국가고시, 임용고시 과목당 5~10% 가산점, 정부기관, 국가기관, 검찰, 법원, 경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거의 모든 자리 씩씩이. 내가 왜 취업이 힘든지 알고는 있니?”

36) 2017년 4월 6일, <ytn 인터넷 뉴스기사>, ‘5·18 유공자 자녀는 금수저’ 고시촌에 뿌려진 괴담/ http://www.ytn.com.kr/_ln/0103_201704061024228747

고통을 경쟁시키는 새로운 부정의 회로가 지금 2017년 '기억-정동' 전쟁을 부추기려 한다. 다음 세대가 역사를 망각하기를 바라는 측은 계속 기억을 왜곡, 조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의 왜곡, 조작은 언제나 현재의 취약함을 겨냥한다. 그 왜곡, 조작의 주체들이 정치적, 역사적, 이념적 악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다. 절멸의 역사를 망각시키고 싶은 이들은, 서로가 인간임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소년이 온다』 안에는, 굶주린 수감자들을 식판 하나와 한줌의 음식을 갖고 싸우게 만드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인간의 생리적 욕구, 자기보존 욕구를 이용한 폭력, 인간이 어디까지 자기모멸하고 추락하는가를 경쟁시키는 폭력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타인 뿐 아니라 스스로를 모욕하는 행위와 구조를 보여준다. 서로가 인간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모욕의 구조는 어쩌면 광주나 아우슈비츠가 아닌 이곳에도 세련된 형태로 이미 셋팅되어 왔다. 각자도생의 세계 속에서 서로에게 억압이양시키는 구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새로운 5·18평화 전략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 현재의 구조야말로 5월 광주가 계속 현재형으로 기억되어야 하고 그 항쟁의 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이야기 했지만, 마치 “문학적 진상규명 작업”으로 회귀한 듯 보인 『소년이 온다』의 사정이 그러했듯 말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95면)를 잘 모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확신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본성), 선악과 같은 문제틀로는 잘 해명할 수 없다. 개별적 인간의 문제 역시 넘어서있다. 소설 속에 필로그의 말을 빌리자면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엮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도청 앞의 시신들 앞에*

서 대열을 정비해 군가를 합창할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된 병사가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212면)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소설 바깥 1980년 5월 광주 이야기이기도 하고, 강조하지만 현재 소설 『소년이 온다』이 놓인 자리의 비유로도 읽을 수 있다. 이 소설이 왜 목적서사의 재래처럼 혹은 증언의 증언처럼 놓여 있는가라는 컨텍스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실마리이기도 한 것이다.

구원인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시대에 스피노자는, ‘공포보다 희망에 더 잘 이끌리는’ 이들과 ‘희망보다 공포에 더 잘 이끌리는’ 이들이 동일한 사람들(multitude)이라고 보았다. 소설 속 초점화자의 진술에서처럼 대중은 군인이 되기도 하지만 시민군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군인 중에서도 잔인한 군인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탈하는 군인이 있다. 대중은 공포에 끌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희망에 끌리는 존재이기도 하고, 힘(power)은 폭력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능력·활력이 되기도 한다.

즉, 인간이 언제나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이상, 그 안에서 인간의 무엇이 다라고 정의내릴 본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얼마나 중요할까. 선한본성, 본질에 기대하고 안도하는 것은 차라리 기만이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은 늘 모든 존재와의 마주침 속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주침의 관계들 속에서 **‘어떤’ 신체를 이룰 것인지** 사유하는 것이 지금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에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역사를 망각하게 하고, 인간을 인간이 아니도록 추락시키고자 하는 힘은 늘 있어왔다. 그쪽이 더 압도적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증거하는 힘도 언제나 동시에 존재해왔다. 망각시키고 추락시키고자 하는 힘이 전부가 아님은 인류의 역사 속 수많은 광주들이 말해왔다. 폄훼하고 모독하는 대중이 있다면,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중이 있다. 그 둘은 반대가 아니다. 단지 다른 방향의 벡터를 가질 뿐이다. 대중의 정동은 힘의 증대와 감소에 관

련된다. 기쁨의 상태로의 이행에는 애초에 구분된 지점이나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턱(threshold)들이 존재할 뿐이다. 상반되고 이질적인 '기억-정동'이 뒤섞인 오늘날, 이행의 문턱들은 다른 장소에 있지 않다. 그 물길을 바꿀 힘도 이 뒤섞임 안에 있다. 망각시키는 힘뿐 아니라 망각에 저항하는 힘도 지금 이 뒤섞임 안에 있다. 지금 '광주'와 『소년이 온다』와 잠재성의 철학자들이 그것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아렌트는 예루살렘 법정을 참관하며 “인간적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으며, 망각이 가능하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야기기를 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항상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³⁷⁾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수(數)에 대한 이야기나, 윤리적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나.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언제나 모든 존재와 네트워크되어 있고, 또한 원초적으로 기쁨(사랑, 존엄)을 향해 정동되기를 소망하는 존재다. 어떤 비참과 야만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이 쉽게 회의되서는 안 될 것이다. 『소년이 온다』의 한 서술자 주인공(동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픽션으로서의 소설을 실질적으로 끝내는 말)이 “왜 캄캄한 데로 가아,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192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연합신문』

『한겨레신문』

『ytn 인터넷 뉴스』

www.518archives.go.kr/books

37) 한나 아렌트(김선옥 옮김), 앞의 책, 324면.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 총서』 제2권, 1997.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기획, 이정우 편집,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 2012.
- 문선희 짚고 엮음, 『물고, 묻지 못한 이야기: 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 난다, 2016.
- 5·18 기념재단 엮음,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심미안, 2006.
-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 김형중, 『『봄날』이후』, 『내일을 여는 작가』, 2002년 여름.
- 서영인, 「집단기억과 개별성의 고통 사이-한강, 『소년이 온다』(창비, 2014)」, 『삶이보이는창』, 2014년 가을.
- 심영의, 「5·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2015.
- 정미숙, 「정동과 기억의 관계시학- 한강,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6.
-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14.
- 한순미, 「나무·몸·시체: 5·18 전후의 역사폭력을 생각하는 삼각운동」, 『인문학연구』, 2016.
- 한나 아렌트(김선옥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 酒井直樹, 「情動の政治學」, 『思想』, 2010.5.
- 앙리 베르그손(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6.
- 질 들뢰즈(서동욱·이충민 옮김),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1997.
-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외(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Abstract

The Age of the 'Memory-Affect' War and the Literary Resistance
: The Place of "Human acts"(Han Gang, 2014)

Kim, Mi-jung*

This study starts from the critical mind on the war of memory-affect in which insult of 'Gwangju Uprising' are connected with the multitude's sensitivity after 2010. The war of memories can be triggered by revisionism or the trickery of conservative ideologues. However, Insult of 'Gwangju' in the 2010s are carried out at the multitude's sensitivity level. Insults are distributed autonomously. These overlap with the issue of backlash or hate speech manifested at the multitude's level in 2010s. In consideration of such critical mind, the novel 『Human Acts』 published in 2014 is especially meaningful.

First of all, it shows how the generation without memories and experiences can overcome their own limitation in writing. Memory needs to be understood in an ontologic sense, rather than a psychological sense.

Second, the world in the novel implies that 'Gwangju' was not a community using ideology or ethics as a medium, but a huge affect-network. 'Gwangju' is a subject to be reinterpreted or elaborated from the aspect of humanities or social sciences, not from the aspect of literary.

Third, the novel does not mention vague and blind hope. The multitude(humans) is more attracted to hope than fear, and sometimes to fear than hope. The novel, however, slightly anticipates from the multitude(humans) attracted to and affected by hope. In this way, the novel presents the venue of fierce resistance and strict response on the affect of insult amid the war of memory-affect in the 2010s.

Lastly, this study views that 『Human Acts』 should not be collected as

* Sungkyunkwan University

a subject of individual work studies or writer studies from the critical mind perspective due to the reasons mentioned above.

Key Words: "Human Acts", 'memory-affect', pure memory, testimony, multitude

<필자 소개>

이름 : 김미정

소속 : 성균관대학교

전자우편 : null8@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7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22일